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신문을 보면 ‘Genom’을 ‘게놈’으로 적는 신문도 있고 ‘지놈’으로 적는 신문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동숙,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답 ‘Genom’은 ‘게놈’으로 적어야 합니다. ‘Genom’은 ‘유전자’를 뜻하는 ‘gen’과 ‘염색체’를 뜻하는 ‘chromosom’의 일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날뼉의 생물체가 가진 한 쌍의 염색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1920년 독일의 식물학자 빙클러(Winkler)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어 발음대로 ‘게놈’으로 적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인간의 유전적 정보 해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영어식 발음인 ‘지놈’으로 적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을 굳이 영어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제33차 회의, 2000. 5. 30.]’에서는 ‘Genom’이 원래 독일어이고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게놈’으로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게놈’으로 적을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음 “(이래 뻔도/이래 뵈도/이래 뻔도/이래 뵈도) 나도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에서 맞는 표기는 무엇입니까?

(민소영,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답 “이래 뻔도 나도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가 맞습니다.

‘이래 뻔도’의 ‘이래’는 ‘이렇다’의 어간 ‘이렇-’에 어미 ‘-어’가 붙어 ‘이래’로 표기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랗다, 노랗다, 퍼렇다, 누렇다’에 어미 ‘-어’가 붙어 ‘파래, 노래, 퍼래, 누래’로 활용하는 것에서 유추한 결과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래, 그래, 저래’는 기존의 사전에서 ‘이래, 그래, 저래’가 아닌 ‘이래, 그래, 저래’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 그래, 저래’의 표기가 역사적으로 굳어진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래, 그래, 저래’로 표기가 굳어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래, 그래, 저래’의 형태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의 활용형 ‘이러하여, 그러하여, 저러하여’가 줄어든 ‘이러해, 그러해, 저러해’가 다시 줄어 ‘이래, 그래, 저래’로 된 말로 인식하고, [이래], [그래], [저래]로 발음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래, 그래, 저래’는 [이래], [그래], [저래]로 발음하고 ‘이래, 그래, 저래’로 그 표기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래, 그래, 저래’로 적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한편, ‘이래 뻔도’의 ‘뻔도’를 ‘뵈도’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뻔도’는 ‘보다’의 피동사 ‘보이다’가 준 ‘뵈다’에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어도’가 결합한 말이므로 ‘뵈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뵈(보이)어도 → 뻔도

‘되어, 되어도, 되었다’가 준 ‘돼, 돼도, 똘다’를 ‘되, 되도, 똘다’로 잘못 쓰는 것도 이와 같은 예에 속하는데, 이것은 ‘외’와 ‘왜’의 발음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 에서 “‘니’ 뒤에 ‘-어, -었-’이 아울러 ‘내, 내ㅆ’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뵈어-, 뵈어-’가 줄어질 적에는 줄어진 ‘뵈-, 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래 뵈도’가 맞고 ‘이래 뵈도, 이래 뵈도, 이래 뵈도’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음 “너도 알다시피/아다시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에서 ‘알다시피’와 ‘아다시피’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재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답 동사 ‘알다’의 어간 ‘알-’에 연결 어미 ‘-다시피’가 결합한 ‘알다시피’가 맞습니다.

연결 어미 ‘-다시피’는 ‘알다, 보다, 느끼다, 짐작하다’ 등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는 바와 같이’의 뜻을 나타냅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게 무슨 힘이 있겠니?”, “보시다시피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도 느꼈다시피 요즘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짐작하다시피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등으로 써야 합니다.

‘알다’가 ‘ㄴ’, ‘ㄷ’, ‘-오’, ‘-시-’ 앞에서 ‘아는’, ‘압니다’, ‘아오’, ‘아시오’ 등처럼 어간의 끝소리인 ‘ㄷ’이 탈락하는 용언이기 때문에 ‘아다시피’처럼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어미 ‘-다시피’ 앞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ㄷ’이 탈락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도 알다시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로 써야 합니다.

물음 “친구가 아는 체하며 말을 걸어왔다”가 맞습니까, “친구가 알은체하며 말을 걸어 왔다”가 맞습니까?

(박선미, 서울 강동구 길동)

㉮ “친구가 알은체하며 말을 걸어왔다.”가 맞습니다. ‘알은체하다’와 ‘아는 체하다’는 서로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아는 체하다’는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는 뜻으로, “모르면서 아는 체하다가 망신만 당했다.”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흔히 “친구가 아는 체하며 말을 걸어왔다.”처럼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때는 ‘알은체하다’를 써야 합니다. 한편, ‘알은체하다’와 ‘알은척하다’는 동의어이므로 “멀리서 친구 하나가 내 이름을 부르며 알은 척했다.”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알은체하다/알은척하다’는 ‘알다’의 어간 ‘알-’에 관형형 어미 ‘-은’이 결합한 말이지만 ‘안’이 되지 않는 것은 ‘알은체하다/알은척하다’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은√척하다’처럼 띄어 쓸 수는 없는 한 단어입니다.

- (1) ㄱ. 얼굴이 익은 사람 하나가 알은체하며 말을 걸어왔다.
 ㄴ. 친구가 알은척하며 내 이름을 불렀다.
- (2) ㄱ.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ㄴ. *낯선 사람 하나가 아는 척하며 내게 말을 걸어왔다.

【물음】 “사정은 딱하다. 그렇지만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에서 ‘그렇지만은’이 맞는 말입니까?

(이현진,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 ‘그렇지만은’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이라는 말은 국어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마는’이 옳은 말입니다. ‘만은’과 ‘마는’은 결합하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만은’은 “너만은 믿었다.”, “철수만은 올 줄 알았어.”와 같이 체언과 결합하고, ‘마는’은 “밥은 먹었다마는 배가 고프다.”와 “오늘은 그냥 가지마는 다음에는 어렵었다.”와 같이 어말 어미 ‘-다’나 ‘-지’와 결합합니다. ‘만은’은 보조사이고 ‘마는’은 어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정은 딱하다. 그렇지마는

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마는’의 준말 ‘그렇지만’이 있으므로 “사정은 딱하다. 그렇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는 가능한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의 ‘만’은 보조사 ‘만’이 아니라 어미 ‘-마는’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물음 “철수는 공부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합니다.”라는 문장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로 쓰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까?

(조혜설, 경기도 광명시)

답 ‘그뿐만 아니라’만 맞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의 ‘뿐만’은 보조사 ‘뿐’에 다시 보조사 ‘만’이 붙은 것입니다. 보조사 ‘뿐’은 다음의 예문 (1)과 같이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쓰여 한정 의의를 나타내며,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 (1) ㄱ. 추위와 바람 소리뿐 어디에도 불빛 하나 없었다. (보조사)
 ㄴ.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있다. (보조사)

보조사 ‘뿐’은 문장의 첫머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를 문장 첫머리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의하신 문장은 조사 ‘뿐’ 앞에 앞 문장을 받는 대명사를 넣어 “철수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합니다.” 정도로 고쳐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뿐’을 선행어와 띄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2)와 같이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형 뒤에서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2) ㄱ. 그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의존 명사)

ㄴ. 그는 음정도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박자도 못 맞추는 음치이다. (의존 명사)

따라서 문의하신 문장은 의존 명사 ‘뿐’을 이용하여 “철수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합니다.”로 고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